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2009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수익성 큰 폭 회복

- 2009년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2008년보다 280억 달러 증가한 283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, 자기자본 이익률도 2008년 0.6%에서 2009년 5.8%로 크게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큰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
 - 손해보험산업의 수익성 회복은 보험영업손실이 지난보다 181억 달러 감소하고 투자영업이익은 증가했기 때문이며, 특히 보험영업성과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2008년 105%에서 2009년 101%로 하락함.
 - 그러나 283억 달러의 순이익은 2007년 625억 달러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자기자본이익률 또한 지난 51년간 장기평균인 9.1%를 하회하는 등 금융위기로 인한 손해보험산업의 부진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.
- 보험영업손실은 보험료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8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며, 금융시장 안정으로 실현 자본손실(realized capital loss)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영업이익도 증가함.
 - 보험료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와 보험회사들의 경쟁적인 보험료 인하 등으로 2008년에 비해 3.7% 감소하였으며, 이는 데이터 집계기 시작된 195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임.
 - 반면 지급보험금은 대재해 손실이 크게 감소하면서 2008년에 비해 9.3% 감소한 3,067억 달러를 기록하며 보험영업손실 감소에 기여함.
 - 투자영업이익은 자산운용이익이 2008년에 비해 8.7% 감소한 반면 실현자본손실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23.2% 증가한 390억 달러를 기록함.
-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 및 재무보증 관련 손해보험회사들이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9년에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.
 - 이들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은 2008년에 비해 24.9% 감소하는 등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지급보험금이 45%로 크게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2008년 297.6%에 달하던 합산비율 또한 2009년에는 192%로 낮아짐.
 -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수입은 3.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산비율은 99.3%를 기록함.

(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, 4/15)